

데스크 시각



최재호 경제부장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본사를 나주로 이전 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의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할 만한 변화다. 한국 전력을 비롯한 14개 공공 기업이 이전(2개 기관 내년 이전)하면서 허허벌판이었던 나주 금천·산포면 일대가 지역경제 중심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전 이전으로 3900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만 명을 넘어섰다. 나주시의 올 공시지가 상승률은 4.33%로 다른 혁신도시보다 월등히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증가했다. 한전 본사가 이전하기 전 49개였던 편의시설은 이전 후 114개, 지난 9월엔 389개로 3배 이상 늘었다. KTX와 버스 배차 횟수도 각각 6회, 66회에서 13회, 172회로 크게 늘어 교통도 편리해졌다. 지방세도 2014년 이전하기 전 9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은편칼럼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행정학박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이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자기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적일 수 수밖에 없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조했다. 현행 역사교과서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들긴 했지만 과장이 좀 지나치다싶었다. 그래서 이전 혼용무도(昏庸無道)라는 울해의 사자성이 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다. 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현대사의 편향이나 아니라 연나라와 고조선의 접경에 위치한 요동지방에 있는 또 다른 평

기고



강신영 국립광주과학관장

지난 2006년 11월, 13억 중국 사회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대국굴기(大國崛起)'라는 중국 관영 중앙TV(CCTV)가 제작 방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때문이다. CCTV 제작팀이 무려 3년에 걸쳐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국 내외 최고의 전문가 100여명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9개 강대국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통해 중국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했다. 전국에서 '재방' 요청이 쇄도했고, 순식간에 1만권이 넘는 책이 팔려 나갈 정도로 다큐멘터리는 대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에서도 EBS를 통해 방영됨으로써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진단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강대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는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도전적으로 극복하는 용기와 다른 하나는 누구도 취하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특히 한전은 지난 1년간 빛가람혁신도시를 산학연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현재까지 대기업 5개 사, 중견·중소기업 68개 사, 외국계 기업 3개 사, 연구소 기업 1개 사 등 77개사를 유치했다. 당초 올해 목표 50개사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세계적 에너지특화도시로

이를 통해 4261억 원의 투자 유치, 303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내년까지 100개,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지역 핵심인재 1000명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한편의 계획대로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이 완성되면 나주는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특화도시가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한전은 이전 후 광주시 및 전남도와 공동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약과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협약식 등을 개최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들어서게 될 77개 기업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고르게 유치될 계획이며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기금 출자 등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빛가람 혁신도시는 타 혁신도시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큼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거듭하

고 있다. 지자체와도 발전을 위한 상생 모델을 그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빛가람혁신도시의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들로 인해 간과된 것도 있었다. 혁신도시 난개발, 클러스터 분양 지연, 늦어지는 공단 조성 등에 대한 한전과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그것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 가진 'E-valley Frontier 77 세미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에너지밸리를 본격 가동하는 데 있어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와 클러스터 분양 지연, 기업 직원의 임대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 각종 건설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 등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례적인 일로 조 사장은 "한전과 지자체의 협력이 없이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성공은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지자체 협력만이 성공 담보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온 배경을 보면 전국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전율이 가장 저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교육과 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에너지밸리로 이전한 입주기업 사장들도 빛가람혁신도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 냈다. 한 입주기업 사장은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산업 단지에 분양을 받았지만 공단 조성이 늦어 공장도 세우지 못하고 클러스터의 용도와 업종 분류도 안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 시내와 혁신도시 간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중소기업 직원은 사택 지원도 안 되는 미비한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강한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혼자서 되는 일은 없으며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비로소 일이 완성된다는 말이다. 한자성어로 책장난뎡(隻掌難鳴)이라고 하는데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면 일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나주시가 한전을 비롯한 입주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하루빨리 답을 해야만 빛가람혁신도시가 목표했던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특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직원들이 금요일만 되면 서둘러 집(서울)으로 가려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같은 꿈은 요원하다. 하루빨리 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전남도·광주시·나주시의 분발과 노력이 요구된다. /lion@kwangju.co.kr

社說

아무리 거물급 인사라도 광주 가면 죽는다?

허성관(68)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못 돼 지난날 11일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전윤철(76) 광주비엔날레 이사장도 엇그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취임한 지 1년도 못 돼 물러났다. 이들의 사퇴는 각기 여론의 압박 정도 등을 볼 때 모양새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두 사람 다 장관만 여러 차례 지낸 거물급 인사로서 지역을 위해 크게 기여를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도 그럴 것이 허 전 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바 있고 전 이사장 역시 감사원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경제부총리 등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경력이나 능력이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전 이사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신이 밝힌 대로 억척질 뿐이다. 그보다는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재정·확충 등 주위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개인적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지

현 정부에서는 탕평인사 꿈도 꾸지 마라

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인사 편중과 호남 차별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 집권 2년 반을 넘어선 현재, 경상도 출신의 독식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 호남 출신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인사 탕평과 국민 대통합은 아예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엇그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영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으며 여성가족

장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발탁됐다. 결국 이번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대구·경북 출신 등 특정지역 인사의 독식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 10월 단행된 장·차관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 인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현 정부의 '마이웨이'식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지역 안배를 통해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인데도 이런 상식 밖의 인사로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탕평의 실체는 국정 운영의 새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임에도 왜 이를 도를 채우는 것일까.

無等鼓

1분 47초짜리 광고 영상 한 편이 지구촌을 울리고 있다. 독일 대형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EDEKA)가 유튜브에 올린 독거노인 광고다. 20여 일 만에 4400여만 명의 눈시울을 적셨다. 광고는 장성한 세 자녀를 도시로 떠나 보내고 홀로 남은 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의 곁에는 개 한 마리 외에 아무도 없다. 성탄절을 앞두고 자녀와 손주들의 얼굴 보기만을 고대하지만 바쁜 도시의 일상에 파묻힌 자녀로부터 오는 것은 올해 성탄절에는 찾아오기 힘들다는 전화뿐이다. 가족들이 한데 모여 왁자지껄한 이웃집 풍경과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얼굴. 넓은 식탁에서 혼자 쓸쓸하게 식사를 하는 그의 모습이 자레로 비친다. 화면이 바뀌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바뀌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중국에 사업자가 있던 아들은 휴대전화를 받은 뒤 오열을 삼키고 딸은 견잡을 수 없는 눈물을 쏟는다. 병원 복도를 바빠 오간던 의사 아들도 벽에 기대어 오열한다. 부리나케 분가로 달려간 아들은 아버지를 외롭게 돌아가시게 한 데 대한 회

면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때' 라는 전화뿐이다. 가족들이 한데 모여 왁자지껄한 이웃집 풍경과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얼굴. 넓은 식탁에서 혼자 쓸쓸하게 식사를 하는 그의 모습이 자레로 비친다. 화면이 바뀌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중국에 사업자가 있던 아들은 휴대전화를 받은 뒤 오열을 삼키고 딸은 견잡을 수 없는 눈물을 쏟는다. 병원 복도를 바빠 오간던 의사 아들도 벽에 기대어 오열한다. 부리나케 분가로 달려간 아들은 아버지를 외롭게 돌아가시게 한 데 대한 회

식민사관과 고대사 죽이기

중에 하나가 식민사관에 가려진 고조선의 역사를 되찾고 고대사를 바르게 쓰는 일이라 생각된다. 식민사관은 일본이 한국을 영구지배하기 위해 일본의 역사학자 스에마쓰 아스카즈(末松保和),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 조작하고 왜곡 발전시킨 역사관이다. 그들이 주장한 '고조선 신화설'이나 '한사군의 한반도설' '한국사의 타율성론' 등은 광복 이후에도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제자인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이들의 역사학계의 주류로 행세하면서 통설로 내려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단군을 신화로 배웠으며 필자 역시 그렇게 알고 지내왔다. 그러나 관련서적을 통해서 본 식민사관의 현실적 깊이와 고대사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접하면서 실로 그 충격은 컸다. 특히 정인보 선생과 신채호 선생의 뒤를 이은 재야사학과 민족사학 측에서는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사고전서' 등 새로운 사료를 연구하여 단군은 실제 역사이며 고조선의 수도 왕함성(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연나라와 고조선의 접경에 위치한 요동지방에 있는 또 다른 평

양이라는 사실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사군은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하북성 동남쪽 요서에 있었던 사실도 포함돼 있다. 고조선의 국경 역시 '전한서', '사기', '후한서' 등 20여종의 사서의 확인을 통해 서쪽으로는 베이징 근처의 난하 유역에 이르고 북쪽은 아르군강, 동북쪽은 흑룡강, 남쪽은 한반도 남부의 해안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다. 고조선의 뒤를 이은 고구려의 강역도 고조선과 비슷한 위치라고 비정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 역시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던 또 다른 평양이라는 것을 사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터였던 살수과 패수가 현재의 청천강과 대동강이 아니라 발해만의 관문인 임유관(하북성 소제)주변의 난하와 영정하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다. 일례로 '수서'와 현 중국의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에 의하면 고구려와 수나라의 1차 전쟁에서 고구려 영양왕(서기 598년) 때 경이시(姜以式)장군이 5만 대군으로 수문제와 주라후 장군이 이끈 30만 대군을

임유관에서 싸워 대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2차 전쟁(서기 612년)에선 을지문덕 장군이 수양제의 113만 대군을 살수에서 대파했다고 기록돼 있다. 살수가 청천강이라던 1차 임유관 전쟁에서 대승했던 고구려가 2차 전쟁에서는 임유관과 3천리나 떨어진 청천강에서 전쟁을 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이 모두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중국의 1차사료(원전)를 근거로 연구해낸 결과임에도 주류 사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일체 배제한 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사는 무엇보다 1차사료의 근거와 유적이나 유물에 의한 고증에 의해서 사실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국내 사료가 없으면 관련된 중국 등의 사료를 연구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일본이 만든 식민사관으로 고대사 죽이기를 계속할 것인가?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광주, 과학문화로 미래를 선점하자

얕던 새로운 패러다임 즉,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다. 15세기 후반에는 선진 해양기술로 앞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했고, 18세기 말에는 '작은 구멍가게'라는 별명의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해가지지 않는 나라" 가 되었다. 또 유럽에서 가장 뒤처진 국가였던 독일은 1870년대에 대학의 화학실험실에서 탄생한 열로기술로 제 2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켰고, 참담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도 바로 과학기술이 있었다.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산업 발전에 매진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강대국의 발전과정은 자연스럽게 도시에도 적용된다. 스마트한 IT 기술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초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아무도 프랑스의 파리 혹은 영국의 런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도시 뉴욕을 간다거나 프라하, 도쿄 혹은 피렌체를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도시는 제각기 예술과 문화, 음식과 축제, 창의성과 과학기술이라는 글로벌한 가치들을 내세우며 서로 경쟁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부를 창출하면서 성장해가고 또 퇴락

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광주는 어떠한가? 어떠한 글로벌한 가치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세계를 지배하고, 18세기 말에는 '작은 구멍가게'라는 별명의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해가지지 않는 나라" 가 되었다. 또 유럽에서 가장 뒤처진 국가였던 독일은 1870년대에 대학의 화학실험실에서 탄생한 열로기술로 제 2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켰고, 참담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도 바로 과학기술이 있었다.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산업 발전에 매진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강대국의 발전과정은 자연스럽게 도시에도 적용된다. 스마트한 IT 기술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초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아무도 프랑스의 파리 혹은 영국의 런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도시 뉴욕을 간다거나 프라하, 도쿄 혹은 피렌체를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도시는 제각기 예술과 문화, 음식과 축제, 창의성과 과학기술이라는 글로벌한 가치들을 내세우며 서로 경쟁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부를 창출하면서 성장해가고 또 퇴락

학연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들에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놓으며 미래세대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 과학문화를 통해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시성을 갖도록 하자. 대학연구실의 우수한 과학성과가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으로 연계되고,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가 성장되는 선 순환적인 구조로 변모되게 하자.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2013년 호남권의 과학문화 거점 기관으로 첨단단지 내에 설립되었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밖 과학교육을 통해 미래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과학과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과학문화 확산은 국립광주과학관 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지자체는 물론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과 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전국에서 광주에만 유일하게 있는 첨단동과 첨단과기로 가 세계인들에게 유명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모두가 과학문화 확산에 나서야 할 때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